

# 구약의 절기와 추수감사주일

## ■ 본문

출 23:14-16

## ■ 시작 찬송가

9, 28, 43장  
(통 53, 28, 57장)

## ■ 헌금 찬송가

305, 314, 85장  
(통 405, 511, 85장)

## ▶ 감사에 대한 권고

1.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시 100:4)
2.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라(시 107:22)
3.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4)
4.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5.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골 2:6,7)
6.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빌 4:6)
7.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 ▶ 첫 열매에 대한 말씀들

1. 하나님께 바침(레 23:9-11)
2. 첫 열매 및 첫 소출이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짐(민 18:12,13)
3.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거룩함(롬 11:16)
4. 레위 자손 땅에서 난 첫 열매는 거룩함(겔 48:14)

교회의 예배는 절기 혹은 교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력 혹은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신앙 생활의 시간표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가 바로 교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력 혹은 절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런 절기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출 23:14-16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 1. 구약의 3대 절기

### 1)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פסח**(페샤흐)는 ‘넘어 간다’(passover)에서 왔습니다.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을 보여줍니다.

출 12:13-15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 2) 맥추절(칠절절, 오순절)

이스라엘은 일년에 두 번 추수감사제를 갖는데 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오순절, 또는 칠절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한 처음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신약시대에 오순절과 같습니다.

행 2:1-2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 3) 수장절(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새해가 시작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라 하여 연중 가장 큰 행사를 갖는 축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들은 종려나무, 버드나무 등의 가지들을 모아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때에는 올림픽기간 중에 수장절이 들어 있어 일부 이스라엘 선수들은 이 날 경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레 23:23-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 2. 추수감사주일

### 1) 추수 감사에 대한 성경적 고찰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레 23:9-14), 맥추절(레 23:15-22), 수장절(레 23:34-38)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은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며, 칠칠절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여 한 해 동안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그해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 2) 역사적 기원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들을 태운 180톤의 선박 메이플라워호가 65일 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신대륙(아메리카)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종교 탄압을 피해 이주를 결행한 개척자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이 미국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정착 초기 풍토병, 식량부족, 악천후 등으로 44명이 사망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며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 3) 국가적 기념일로 제정

1789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을 '구 왕정 시대의 악습'으로 규정하여 폐지지만,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제정, 발표했다. 그 때는 아브라함 링컨 당시 남북 전쟁 중이었지만, 추수감사주일 이 날 하루만은 전쟁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때 서경조 장로의 발의에 의해서였습니다.

### 4) 추수감사주일의 전통

미국 초기 개척자들의 감사 축제는 일주일 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축제 기간 중에 인디언들을 초청했습니다. 개척자들과 인디언들이 한 때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 열매가 둘 사이를 화해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초청받은 인디언 가운데 한 명이 총을 들고 새를 잡으려다가 뜻밖에 야생 칠면조를 잡아 축제 음식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 감사의 시기

1. 핍박을 받을 때 (마 5:11,12)
2. 음식을 먹을 때(마 14:19)
3. 성찬에 참여할 때 (막 14:23)
4. 주님을 뵈을 때 (눅 2:23-32)
5. 일을 시작할 때(요 11:41)
6. 일을 마쳤을 때 (느 12:42-43)
7. 직분을 맡았을 때 (딤후 1:12)
8. 중보 기도할 때 (딤후 2:12)

#### ▶ 감사의 방법

1. 찬송으로(삼하 22:50)
2. 새 노래로(시 98:1)
3. 악기를 사용한 찬양으로 (시 33:2)
4. 전심으로(시 9:1)
5. 자발적으로(빌 1:3)
6. 예배를 드림으로 (고후 9:11)
7. 헌금을 드림으로 (시 50:14)
8. 재물과 소산물을 드림으로 (잠 3:9,10)
9. 토지 소산의 처음 것으로 (출 34:26)
10.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로 (롬 14:6,8)
1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엡 5:20)

#### 결론

1. 유월절은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3.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절기입니다.

####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대통령과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5.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6.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7.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8. 아동성소변원과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9.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